

94.2.12

폭설... 폭풍... 「최」

陸海空 모두

94.2.12

설날 妻家 5명 兇殺害

충북 진천 사위, 만취犯行 후 자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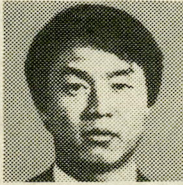
別居 아내 재결합거부에 앙심



자살한 崔源昊씨



장모 金鍾仁씨



큰동서 宋有植씨



처형 孫仙玉씨

〔진천·청주=文哲·李基〕 설날인 10일 오후 8시 50분경, 충북진천군진천읍 교성리 40의2孫鶴壽씨(58·구신천동17의6 미성아파 5명)를 살해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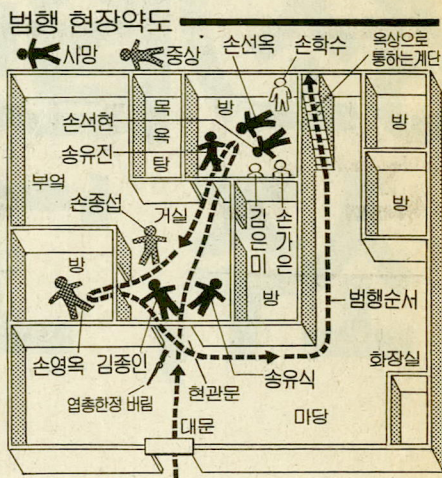
이날 崔씨의 열종남자로 장모 金씨 외에 동서부부 宋有植(32·진천종교사 孫仙玉씨(32·유치원교사) 처 조카 孫顯宗(7)과 宋有植(3)이 숨졌다.

崔씨의 부인 孫榮玉씨(27)와 처남 鍾燮씨(33)를 살해한 뒤 인근 도로에서 자살했다. 또, 도시에 발아파트는 중상을 입었으며, 崔씨는 孫씨집을 상으로 올라가 가슴에 열총을 쏘 자살했다.

범행 현장인 崔씨는 술에 만취된 채 이날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화투놀이를 하고 있던 장모 金씨와 동서 宋有植 처남 鍾燮씨에게 열총을 난사, 장모와 宋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, 鍾燮씨가 중상을 입었다.

崔씨는 곧바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모여 TV를 보고 있던 처형 孫仙玉씨와 어린 처조카 有植(7)과 顯宗(7)에게도 열총을 쏘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.

이 방에는 장인 孫鶴壽씨와 처남대 金銀美씨(33)가 있었으나 孫씨는 장롱



범행 현장인 崔씨는 술에 만취된 채 이날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화투놀이를 하고 있던 장모 金씨와 동서 宋有植 처남 鍾燮씨에게 열총을 난사, 장모와 宋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, 鍾燮씨가 중상을 입었다.

崔씨는 곧바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모여 TV를 보고 있던 처형 孫仙玉씨와 어린 처조카 有植(7)과 顯宗(7)에게도 열총을 쏘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.

이 방에는 장인 孫鶴壽씨와 처남대 金銀美씨(33)가 있었으나 孫씨는 장롱